

# 관엽류



한 경 숙\_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관상가치가 높은 잎을 주로 보기 위해 재배되는 식물인 관엽류에는 고무나무, 안스리움, 스파티필럼 등 다양한 식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줄기마름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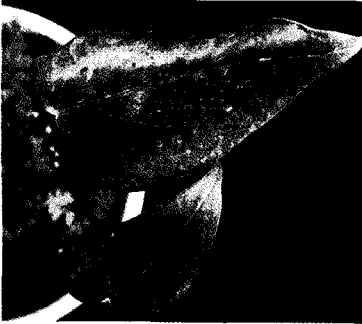
삼목상이나 파종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처음에 자갈색 둥근 점무늬가 생기고 차츰 병반이 커지고 표면에 작고 검은 입자가 생긴다. 심하면 병반이 줄기를 둘러싸므로 상부가 말라죽게 된다. 심하게 발생한 식물체를 살펴보면 갈색의 거미줄 같은 균사체가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든 식물체는 신속히 제거하고 맑은 날 건조한 상태에서 전정하는 것이 좋다. 삼목시 가위·칼 등은 소독하여 사용하며, 삼목후에는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줄기썩음병



스파티필럼의 잎이 황화되며 잎자루의 기부와 뿌리가 썩는 증상이 발생하고 지체부 줄기에는 암갈색 방추형의 병반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증상은 6월 이후 여름철 고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며 화분속 뿌리가 심하게 썩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온기 뿌리손상에 의한 생리장해로 여겨져 왔다. 건전한 삼수를 사용하고 분갈이 직후 적용살균제를 살포함으로써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토양내 근권온도가 높을수록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 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수성 스파티필럼 품종재배시 여름철에 근권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재배환경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세균성점무늬병



안스리움이나 아이비에서 주로 발생한다. 처음에는 주로 잎에 노란 점 무늬를 형성하거나 가장자리가 노랗게 되며 차차 갈색으로 되어 잎마름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뿌리 부근의 벌브 부분도 갈변되어 식물 전체가 시들기도 하고 황화되기도 하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방제방법으로는 건전한 모종을 구입하고 상토 및 농자재 등을 소독하고 정식한다. 방제약제는 세균방제용 전문약제를 사용하며 재배적 관리에서는 관수시 가능한 잎이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수관수와 같은 재배 시스템에서는 방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스리움의 많은 재배품종이 구리와 스트렙토마이신, 황화합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살포시 주의해야 한다.

### 점균병



전날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던 식물체가 다음날 아침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식물체 전면에 옅은 보라색 내지 회색의 정체 모를 물질이 붙어 있게 된다. 해가 뜨면 바로 마르고 덩어리를 손으로 긁으면 제거된다. 병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등미생물이기 때문에 잎이 썩거나 하는 피해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관엽식물에서는 상품화되기 어렵다. 점균류는 따로 예방하거나 방제할 필요가 없지만 평소에 살균제를 거의 살포하지 않는 작물에서는 갑자기 발생하여 피해를 주기도 한다. 비가 계속내리거나 다습한 조건에 지속될 때 일반적인 살균제를 한 번만 살포해 주면 아주 잘 없어지기 때문에 예방도 어렵지 않다.

### 차면지응애



팔손이, 홍콩쉐프렐라, 자금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차면지응애는 주로 성장점 부근의 눈과 전개 직후의 잎 그리고 꽃과 과실을 주로 가해한다. 심하게 피해받은 잎은 주로 가장자리를 따라 뒤로 말리면서 뺏뺏해지고 팔손이의 경우 잎이 컵모양으로 안쪽으로 말리기도 한다. 표면이 갈색의 코르크 표면처럼 생기는 특징을 가진다. 차면지응애는 미소해충으로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 후 약제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 깍지벌레



꿀가루깍지벌레, 무화과깍지벌레, 난초핀깍지벌레, 식나무깍지벌레, 철모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등 다양한 종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 대부분 흰색 솜털모양의 깍지벌레가 잎자루와 가지틈에 부착되어 흡즙을 한다. 또한 잎기부와 잎자루에 황갈색 깍지벌레가 부착되며 잎이 노랗게 탈색되어 반점이 남기도 한다. 깍지벌레 분비물에 의해 검은색 연탄재 모양의 그을음 병이 발생하여 2차 피해를 나타낸다. 깍지벌레 방제방법으로는 발생이 적을 때는 직접 손으로 긁어서 떨어뜨린다. 피해엽과 가지는 잘라 없애고 발생이 많을 때는 전문약제를 1-2회 살포한다. (K)